

# 네팔의 결핵관리

Dr. Lohit Raj upadhaya /  
네팔 보건성 국립결핵센터 부원장



**WHO결핵관리 한국연수차  
(1. 18~1. 26) 방문한  
네팔의 우파디아박사가  
네팔의 결핵관리  
현황을 적은 옥고를  
기고했다. 그는  
현재 네팔 보건성의  
국립 결핵센터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편집자)**

네팔(Nepal)은 남쪽의 인도와 북쪽의 중국과의 사이에 위치한 작은 국가이다. 총인구는 약 1천6백만명이며, 영토의 약 75%가 세계에서 가장높은 에베레스트산(Mount Everest)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도의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네팔에 있어서의 결핵(tuberculosis)은 아직도 심각한 보건문제로 남아 있다. 과학적인 조사자료가 부족한 탓으로 결핵문제의 정확한 크기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추정으로는 도말양성 유병률(prevalence of sputum smear positive tuberculosis)은 약 인구 천명당 5명 수준이다.

만약 엑스선상 유소견자(양성) 및 기타 모든 활동성 결핵환자를 고려한다면, 결핵유병률은 인구 천명당 10명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네팔에서의 결핵은 전체인구중 젊은 연령군에 있어서, 특히 20~35세까지의 연령군에 있어서 보다 높다.

## 군단위의 결핵사업은 일반보건사업과 통합되어 있어

이것은 그 자체가 결핵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결핵 치료서비스를 전인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핵치료서비스를 조직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중앙에서는 보건성(Ministry of Health) 산하의 국립결핵센터(National TB Centre)가 결핵문제에 대한 계획, 조정, 평가, 물자지원 그리고 교육훈련 및 연구사업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지역결핵센터(Regional TB Centre)



“  
 네팔은 빈곤과 무지  
 그리고 험난한  
 지형에다가 인력이나  
 자금 및 물자 등  
 지원이 부족하므로  
 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

의 설립이 계획되어 있다. (5개의 지역 결핵센터의 설립계획중에서 이미 1개의 지역결핵센터는 설립되었음).

또한 군단위(district level)에서 최 일선 보건지소까지의 결핵관리사업은 일반보건사업(general health services)과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보다 많은 지원과 강화가 요구된다.

네팔은 빈곤과 무지 그리고 험난한 지형에다가 인력이나 자금 및 물자 등 자원이 부족하므로 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은 실정이다.

그러나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조직화된 노력이 이미 시작되었고, 다가오는 10년내에는 결핵이 감소될 긍정적인 징후가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한국에서의 연수여행(study tour) 기간동안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이 제공한 결핵관리분야에 대한 뜻깊은 경험은 나의 조국 네팔의 결핵관리사업을 강화하는데 매우 값진 것이 될 것이다. (번역 박영규) †

### 아직도 높은 치료불협조

네팔은 총 75개 군(districts) 중 50개의 군은 결핵관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25개군은 차후 5개년발전계획(1991~1995) 기간내에 점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몇몇 치료기관에서의 불협조율(불응도)은 70%에 이를 정도로 아직도 매우 높

